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25) 오온, 사대, 정념, 사무량심의 현연

지난 강의에서, 초기 불교에 있어 '지혜'란 오온(五蘊)의 분석적 명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지혜를 개발하고 성취해 나가는데 있어, 팔정도(八正道)와 삼학(三學)의 동시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오온의 분석적 명상이 무아(無我)를 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면, 팔정도와 삼학은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해나가는 실천적 체행이라 하겠습니다. 지식과 실천은 서로 도울 때라야 더 깊고 분명해지는 법입니다. 불교 또한 이 둘이 합쳐져야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즉 니르바나(涅槃)에 다가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제 사설을 지루해 하시거나, 반신반의하실 분들을 위해, 또 위의 취지를 정리해 보는 의미에서, 초기 아함(阿含)의 설법에서 한 대목을 인용해 보어드릴 것입니다. <마지마 니카야> 즉 <중아함>의 일월 인도, 출전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나온 <인도 전통의 원천자료(Sources of Indian Tradition)>에서 골랐습니다.

에 머물고 계셨다. 어느 날 아침 그분은 가사를 걸치고, 발우를 들고, 사바티 성으로 탁발을 하러 나가셨다. 존자 라훌라가 그의 곁을 가까이 모셨다. 가는 도중, 세존께서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지나간 것이든 지금 있는 것이든 앞으로 올 것이든, 또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간에, 거대한 것이나 미세한 것이나, 투박하거나 세련되거나, 말거나 가깝거나— 온전히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것은 즉,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atman)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을 듣고 라훌라는 물었다. "물질적인 것들(色)만 그렇게 보아야합니까?" "아니다. 라훌라야, 물질적인 것들만 아니라, 감각(受), 지각(想), 정신적 구성물(行), 그리고 의식(識)까지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

라훌라가 말했다. "만일 나의 것도 없고, 나도 아니고, 자아도 없다면 그림, 누가 오늘 탁발을 하러 마을에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비록 세존께서 그리 권하신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라훌라는 돌아서서,

가부좌를 하고, 등을 곧추 세우고, 정신을 통일시켰다. 그때 존자 사리푸트라(사리불)가 이 광경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호흡이 들고 나는 것에 더 깊이 집중하시게. 그 집중적 관찰의 공부는 매우 유용하고 생산적일 걸세."

밤이 다가오자 라훌라는 일어나 세존에게로 가서 물었다.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법을 어떻게 개발해야 합니까?"

해해야 한다. 즉, 이 인편의 모든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atman)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보아야 한다. 이 올바른 이해와 자세를 갖춘 사람은 다섯 가지 요소들로부터 눈길을 돌리고,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것들에게서 기쁨을 찾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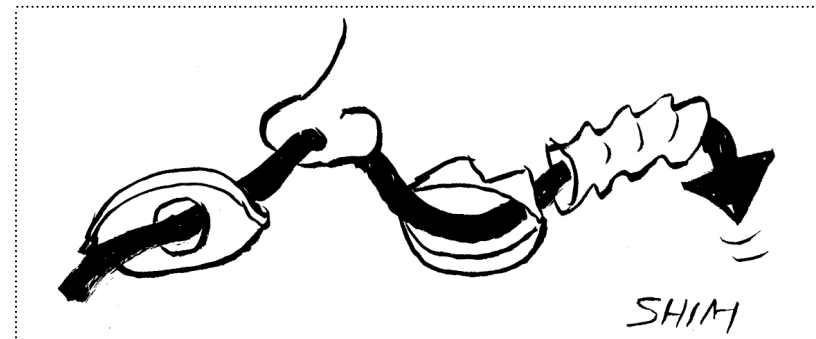
"마음의 상태를 대지(地)처럼 개발해라, 라훌라야. 사람들이 그 위에 깨끗하고 드러난 것들, 풍이나 오줌, 침이나 고름과 피를

우며, 공기(風)는 모든 것을 날려보내며, 또 공간 속에는 거기 아무것도 세워 둔 것이 없다."

"진밀한 마음(慧)을 개발해라, 라훌라야, 그렇게 하면, 악의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동정심(慈)을 개발해라, 그리하면 번뇌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喜)을 개발해라, 그리하면 혐오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평정(捨)을 개발해라, 그리하면 모순들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몸이 부

고, 몸을 끈게 펴고, 정신을 통일시킨다. 그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완전히 자각한다. 그가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릴 때, 그는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가 호흡을 짧게 들이쉬고 내릴 때, 그는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가 숨을 들이쉬고 내릴 때, 그는 몸의 전 과정과 마음의 전 작용을 의식하도록 자신을 훈련한다. 아울러 모든 사물의 무상함을 깨닫도록, 그리고 무정념과 무집착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한다. 정돈된 호흡의 상태를 개발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생산적이다. 그렇게 호흡을 다스려 나간 사람은 그의 마지막 숨을 내릴 때도 무의식의 혼란 속에 가라앉지 않고 완전한 의식의 각성을 유지한다."

누가 탁발해 붓다에게 공양할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라훌라야, 사람의 몸의 딱딱하고 단단한 것들, 가령 머리칼이나, 이빨, 가죽, 살점,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대지(地)적 요소들이다. 인간 속에 있는 물(水)의 요소들은 담즙, 점액, 고름, 피와 땀 등등이고, 불(火)의 요소들은 몸의 데우고 소화하고 태우는 기능, 즉 음식의 소화와 대사를 맡고 있다. 인간 속에 있는 공기(風)의 요소는 몸속에서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하는 바람, 배와 위장 사이를 흐르는 바람, 신체의 이 부분에서 저 부분으로,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바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의 요소들이 있다. 그것은 귀, 코, 입의 구멍,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가고 머무는, 또 지나고 빠져나가는 통로이다."

"인간의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은 외부세계의 다섯 요소들과 더불어 '우주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이다. 라훌라야, 이 둘을 올바른 견해(正見)로 '객관적으로' 이

해하고 있는 것을 더욱 뚜렷이 의식하는 마음을 개발해라, 그리하면, 정념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떠서 흘러가는 성질을 뚜렷이 의식하는 마음을 개발해라, 그리하면 자아의 오만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는 '마음의 상태'를 개발해라. 사문은 숲으로 가서, 나무 동치 아래, 혹은 빈 집에 들어가 가부좌를 하

주변적 참고와 부연

문제는 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분히 읽어보면 근본 취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책의 편집자는 이 대목 위에 거기에 '정념(right mindfulness)'이란 소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초기 붓다의 설법, 그 실천적 핵심이 여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변적 얘기를 한 둘 해볼까요. 설법의 무대는 <금강경>과 마찬가지로 사위국(舍衛國) 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입니다. 사위국(Sravasti, Savatthi)은 지금의 네팔에 가까운 북부 인도의 사해트 마헤트라라고 합니다. 붓다께서는 한해 90만 호를 자랑하며 번성했던 이 도시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의 전반기 40년 가운데 25년을 지냈습니다. <금강경>이 초기 아함부의 경전들과 무대가 같고, 서두도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도 <금강경>이 대승 초기에 성립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마지마 니카야의 일월
붓다께서 제마 숲 아나타핀디카의 승원

주장사파라... (48) 도응선사의 '신라'

조태호

이야 물어 얼마나 깊이나? / 저곳은 사람이 / 한 스님을 붙잡고 / 세가 수수께끼를 /

적지 않습니다 / 년 참으로 거칠나 / 그럼 스님께서 한 말씀해 보세요? / 숨에 먹은 지면 / 1000명이 먹으면 / 왜 그럴까요? /

마르지 않았다 / 물을 세상으로 / 거칠다'는 것은 자비없이 혼자만의 안일을 / 도응선사 / 서로 다듬면 부족하고 / 양보하면 남지 /

혜승(惠承)가 천축에 국도의 길을 가듯 / 삼강이 불경을 얻어 가듯 / 신라의 어느 스님도 고난은 무릅쓰고 /

그대가 읽고 있는게 무슨 경인가? / 네 '유마경'입니다 / 허 /

내가 묻는 것은 생각하는 그놈은 무슨경인가? / 아~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신라나라 /

도응선사의 답을 얻어 왔다 / 개 대답이 무엇인지 / 선사께서 그렇게 말씀하기 어려겠습니까? /

어허 이사람 어려울게 뭐인가? / 그럼 말씀해 보세요? /

도응(846-902)스님: 중국 조동종의 일맥을 전한 스님. 동산 양개의 제자로 운거에 주석할 때 1천5백명이 넘는 선승들이 운집했다고 전한다.

네티즌 교리문답

염불과 참선수행을 함께 해도 되나요?

답 1: 병행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아주 좋습니다. 마음은 8바리의 원승이 저마다 제멋대로 노는 것에 비유될 만큼 각양각색의 면모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참선과 염불에 공경하는 부분은 서로 다릅니다. 처음에는 온갖 수행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아서 자신에게 가장 율미가 크고 깊은 수행법을 자주 발견해나감에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면 처음 가닥이 저절로 잡혀서 선택의 고뇌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요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함이 중요하며, 수행법이 아무리 수승해도 자신의 마음발견에 더디게 작용하면 나쁘고, 아무리 열후한 수행법이라고 해도 자신의 마음발견에 빨리 작용하면 좋습니다. 즉 수행법의 우열은 무의미하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로(旅路)에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토출웅공)

답 2: 질문이 무엇이든 모두 결국은 법(法)에 대한 물음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화두 하나 바로 해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방편으로 염불이든 경전공부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다른 종교든 다 상관없습니다.

저도 요즘은 매일 백팔배를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이 화두를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간화선이, 제가 발견하기로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가령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결국 '법'의 문제이니겠는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으로 전달되었습니까? 그보다는 스스로 그 문제를 푸셔야겠지요. 그래서 역시 "화두 하나 바로 해답입니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가장 바른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스로 푸십시오. 그 지름길은 간화선입니다(오솔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꽃자리, 강화도가 이것의 산지로 유명 2. 파고다공원, 탑동공원의 다른 이름 3. 육으로 만든 국새 4.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사는 일을 일컫는 외래어 5. 1895년 일본의 자객들이 경복궁을 습격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6. 청계천 다리 중 하나로, 기둥에 세진 경(庚)·진(辰)·지(地)·평(平)의 수위표(水位標)로 물의 깊이를 재기도 했음.

정답은 26면에

가로

1	7	8	
	2	9	10
3	11		4
		13	
5	14	15	
		6	

세로

1. 끊는 물에 들어가 삶아지는 고통을 받는 지옥 7. 돌로 만든 탑 8. 털구멍 9. 큰길 안 쪽으로 난, 집 사이 좁은 길 10. 혼자 진행하는 쇼 11. 1970년대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한 지역 사회 개발 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12. 탁구를 이용한 외교, 미국 탁구 팀과 기자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가 개선된 데서 온 말 13.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 서산○○, 사명○○란 호칭으로 익숙 14. 아름답게 꾸민 15. 변화요인을 뜻하는 말로 상수(常數)에 대해 상대적인 말.